

# 광주시정 '광주형 일자리' 로 흔들

'16년 논쟁'을 잠재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성공으로 탄력을 받았던 민선 7기 광주시정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불발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협상 타결에 실패한 데다 현대차와의 신뢰에도 금이 가 광주시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기반한 현대차 투자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부정적인 지역이미지가 덧칠되면서 향후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결의를 바탕으로 수정제안한 협상안에 대해 현대차 측이 공식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모델이 될 현대차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상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 측은 협상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협상방식과 신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인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의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또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협의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그동안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를 오가며 '오락가락' 협상을 진행한 데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일단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처럼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얼마만큼 진전된 협상안을 이끌어 낼지는 의문이다.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협상이 불발된 점도 광주시에는 부담이다.

지난 6월에 이어 2차례나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가 바로 전날 전격 취소되면서 광주시나 광주형 일자리의 입지도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조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차원에서 힘을 실어줬다.여당인 민주당도 3000억원

## 오락가락 협상 광주시-현대차 신뢰 깨져

## 여·야·정 전폭 지원 불구 타결 무산 위기

## 청와대 "협상주체 노력 지켜볼 것" 부담

인프라 예산을 약속하는 등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를 측면 지원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막판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실망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일 예정됐던 협약 체결 조인식이 취소된 데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며 예뉘러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도 상당히 압박

이 되는 위당이다.

이번 협상 불발로 광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만들어질 경우 앞으로 다른 투자유치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메이커인 현대차가 투자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협상 주체들은 대승적인 자세로 타결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민선 7기 광주시정은 순항하는 듯 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이어 광주형 일자리까지 해법을 도출할 경우 광주시의 2대 현안을 연내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핵심있게 밀어붙여 무려 16년 논쟁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해결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협상이 큰 벽을 만나면서 이용섭호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

고 있다.



"영추문 개방을 알립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迎秋門) 개방 기념행사에서 개방된 문으로 취타대가 들어서고 있다.

## '교사가 중학생들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10일부터 본격화

광주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성추행 피해가 의심되는 중학생 24명을 상대로 심층 면담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지역 모 중학교 교사가 성(性) 관련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달라

는 고발장을 냈다.

시교육청이 이 학교 3학년 학생 200여 명을 상대로 진수 조사와 면담을 한 결과 24명이 교사 4명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교사 4명이 치마가 짧다며 사진을 찍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꼬집고 때렸다. 다리 위에 앉아 수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이 지난달 19일 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

진수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사들을 형사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을 배려해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도 도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심층 면담할 계획이다"며 "피해 진술을 듣고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경찰, 윤장현 전 시장 등 검찰에 송치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자녀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 A(49·구속)씨의 자녀 2명이 채용될 수 있게 도와준 혐의(직권남용·업무 방해 등)로 윤 전 광주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총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께 A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 될 수 있게 기관과 학교의 대표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자녀들을 채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했다.

또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과 자녀들의 취업 시기가 비슷한 점에도 주목하고 관련성을 수사했다.

A씨의 자녀 중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단기계약 형식으로 산하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딸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시장은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김정환 기자

## '술자리 폭행' 보복원정 조폭 5명 추가 검거

동료가 광주 폭력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한 수도권 폭력조직원 5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 특별수사팀은 6일 다른 폭력조직원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감금·폭행·협박 등)로 서울·인천·부천지역 폭력조직 3곳 행동대원 A(22)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12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B(24)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4일 새벽 술자리에서 인천지역 폭력조직원이 광주 폭력조직원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폭력조직원 가족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인천 조폭 행동대원 C(25)씨가 광주 조폭들과 주먹다짐을 벌였고, C씨가 수도권에 있는 조폭 후배들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광주지역 조폭들도 일제히 다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 포항서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경북 포항에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6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사거리 인근에서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로 측정됐다. 이에 경찰은 A경위를 대기 발령했다.

##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구속영장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남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병원을 찾은 그는 특별한 이유없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